

2 월의 아이티 기도편지

모두 평안 하신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티를 거지같은 나라라고 비하 발언 했지만, 찡해 오는 제 마음가운데 오직 하나의 소망,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로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계속 이 땅에서 올려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속적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동역자 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단기팀으로 오셔서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그 크신 은혜가 임하리라 확신 합니다

아래 사진은 사역지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비록 허름한 교회당이지만 부두교의 압박아래서 소수가 신앙을 지키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저는 1 월에 미국에서 선교보고차 몇 교회를 순방하며, 아이티 학교사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루빈과 또 학교가 없는 마을에 학교를 세우는 일, 학교가 있는 마을도 초등학교 까지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중학교 설립에 대하여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금년에는 학교운영에 중점을 두고 자 합니다. 먼저, 교복을 준비 할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부터 시작을 하고, 또 아이들의 배고픔을 해결 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시는 분들이 단기팀으로 2 월 19 일, 3 월 5 일 두 교회에서 오십니다. 사역지 현지에서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하는 일을 비롯해, 모든 단기 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시길 기도해주세요. 모든 팀원들 안전과 건강, 그리고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 감사드릴 말씀,

아내의 건강이 무척 많이 회복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1. 저희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계속 되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 해주십시오

유경민/ 재한 드림